

레슨 스터디(Lesson study)를 통한 예비음악교사의 협력적 전문성 신장 가능성 탐색*

오 지 향**

본 연구의 목적은 레슨 스터디를 통하여 음악과 예비교사들의 협력적 전문성 신장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레슨 스터디의 개념과 방법을 적용하여 16명의 예비교사들이 그룹 안에서 과제, 외부 자원 수집 및 공유, 수업관찰을 협력적으로 해결하였고,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 실행, 반성, 재수업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수업을 실현하였다. 연구결과로, 레슨 스터디를 실행함에 따라 수업역량 강화, 음악수업 이해, 유목적적인 토론, 외부자원 수집, 책임감 향상 등의 요인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조정, 역할갈등 및 의견조정의 필요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예비교사로 한정되어 있고 양적인 연구방법만을 사용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사 공동체와 수업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레슨 스터디를 활용해서 협력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후 그 결과를 수정 보완하여 다시 수업을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교사들의 수업역량을 향상하고 현장적용능력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주제어: 레슨 스터디, 협력적 전문성, 수업실연, 예비교사교육

차 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용어 정의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 연구과정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IV. 결과분석 및 해석

1. 레슨 스터디를 통한 수업역량의 향상
2. 레슨 스터디에 대한 인식
3.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A8019294)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부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교사전문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 능력을 교과지식, 교수기술이나 교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 등의 수업전문성으로 보는 기술적 관점에 윤리성 및 리더십 같은 교사 개인의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과정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강조한 논의가 더해지고 있다. 또한, 교사전문성을 개인의 경험축적이나 연수 참여와 같은 개인적 의미가 아닌 교사들끼리 서로 배우고 실천하는 상호관계에서 이해하는 협력적 전문성(Collaborative expertise)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DuFour, 2004; Hord & Sommers, 2007; Liebernab & Miller, 2008; 서경혜, 2012).

음악교과에서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따라서 음악교사의 전문가적 실천을 강조해야 하며 이는 예비교사교육에서도 요구된다. 정부는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 평가에서 예비교사들의 수업실연 능력을 주요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중등교사 임용 시험 중 하나인 수업실연 시간을 20-30분으로 확대하였고 수업실연의 배점을 약 10점씩 상향조정하여 수업전문성 평가를 강화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미국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해 교사임용을 위한 평가체제로 교사의 실천적 수행 및 반성을 강조하는 edTPA(Teacher Performance Assessment)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SCALE, 2013). edTPA를 받기위해서 예비교사는 3-5차시의 수업지도안, 수업에 대한 비디오촬영, 수업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수업, 학습자료 및 평가 등 수업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반성하는 해설(commentary)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예술과목의 edTPA 평가에서는 적절한 학문적 언어사용을 통하여 예술적 지식의 이해를 돕는 것을 평가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edTPA는 예비교사들이 그들의 교수과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수업계획, 수업실행 및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개발, 실천, 분석, 반성한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국가수준의 평가체제로 미국교사양성기관에서는 이 평가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동향은 음악과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도 수업실연이나 교생실습의 기회를 통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의 수업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성찰의

과정이 축적되고 일반화 될 때 실천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여러 번의 수업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비교사들은 주로 1-2회의 모의수업, 수업실연 및 마이크로티칭의 경험을 통해 수업실행의 기회를 갖고 교육실습을 나간다. 예비교사들은 수업실연을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하여 많은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계획한 대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황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경혜의 연구(2012)에서 보고되었듯이, 일반적인 수업실연 방법은 혼자서 한 차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수업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으로 그 수업이 갖는 교수학습적 의미와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의 지식에 대해 공유하고 서로의 수업실연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제공한다면, 지속적인 반성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두 번의 수업실연이 갖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의 경우 자신의 전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성악전공의 예비교사가 가창수업을, 국악전공의 예비교사가 국악수업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전공 외의 이론을 가르치고 활동 할 때 자신감이 결여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체의 책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공실기 수업을 위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익숙한 예비교사들은 그룹 안에서 공동의 책임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음악교사라는 전문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예비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그룹 안에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실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과 방법을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적용하고자 한다. 교사학습공동체 중에서 일본의 교사 전문성 개발 사례인 레슨 스터디(lesson study, 수업연구)¹⁾는 협력적 계획, 교수와 관찰, 분석적 반성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수정, 보완, 완성하는 협력수업의 형태로 지속적인 수정과 반성을 통해서 수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과,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협력 역량

1) ‘수업연구’로 쓰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업을 레슨(lesson)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명칭과 개념을 적용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레슨 스터디로 쓰기로 한다.

도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레슨 스터디의 개념과 방법을 예비교사교육에 활용하였다.

레슨 스터디를 예비교사에게 적용할 경우, 현직교사들처럼 교수현장이 없고 가르치는 경험이 부족하여 수업실행에 대한 실제 지식이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이해 등을 공유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레슨 스터디의 개념과 방법을 적용하여 그룹안에서 수업을 계획, 실행, 반성, 재수업하는 순환적 과정으로 수업실연을 하기 위해, 외부의 자원 수집과 공유, 수업에 대한 계획, 관찰, 분석적 반성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사전문성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 예비교사들의 수업실연이 중요하지만 기회가 많이 없다는 점,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사고과정을 통한 실천적 지식함양에 대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점과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 혼자서 키우는 것 보다는 동료와 함께 함으로써 더욱 신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슨 스터디를 활용하여 음악과 예비교사들의 협력적 전문성 신장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협력적 실행과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수업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레슨 스터디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수업역량은 향상되었는가?

둘째, 레슨 스터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레슨 스터디를 한 후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2. 용어 정의

협력적 전문성: 수업 전문성 기준(임찬빈, 이경언, 2006)에 의하면 수업 전문성을 ‘지식’, ‘계획’, ‘실천’, ‘전문성’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중 ‘전문성’ 영역은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는 행동과 더불어 개선을 위해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비롯한 지속적인 발달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시하였다(P.13).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교육에서도 수업반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협력적 수업 연구인 레슨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으로 협력적 전문성 신장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협력적 전문성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 관점에서 수행되는 협력적 실행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과제수행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는다(임찬빈, 이경언, 2006; 이효신, 2013).

II. 이론적 배경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다른 형태로서 협력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적 공동체는 같은 경험의 공유와 공동의 문제해결 기회 등 동료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문성 발달과 차이가 있다. 술만(Shulman, 1999)은 “학습이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면화하기 이전에, 동료들과 공동의 생각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검증하고 도전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것” 이라고 하며 학습과정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부경 외, 2005, p.27 재인용). 하그리브스와 풀란(Hargreaves and Fullan, 2012)은 “협력적 문화에서 일을 하는 교사는 혼자서 일을 하는 교사보다 수업 또는 일반적인 수행에서 앞선다” 라고 하며 교사의 협력적 수행을 강조하였고, 루이스와 크루제(Louis and Kruse, 1995)는 교실에서의 수업에 성공하는 중요한 부분은 교실 밖에서의 지속적인 배움과 탐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자들도 전문학습공동체, 교사학습공동체, 실행공동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교사들이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자신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고 발전시키거나 협력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해 소개하였다(권낙원, 2007; 서경혜, 2009; 장훈, 2010; 신지혜, 2014).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요약하면, 과거에 교사 혼자서 수업에 대해 고민하거나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현재는 공동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실제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적용을 통한 실천적 지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변화의 양상을 들 수 있다.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들이 구성원이지만, 그 논의 및 적용의 대상이 교사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비교사교육에서도 교과지식이나 교수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라고 불리는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상황에 대한 지식의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교사교육에서도 이렇게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야 한다(서경혜, 2012; 오지향, 2012; Bair, 2013)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의 개념과 장점을 기본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일본의 수업연구 방법인 레슨 스터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레슨(수업)을 통해 레슨(배움)을 얻는다(lesson from lessons)’의 개념을 가진 레슨 스터디는 교실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협력적 연구와 실행을 통해서 지속적인

로 교사전문성을 신장하는 방법이다.

레슨 스터디는 일본에서 개발된 수업연구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교사들의 교사 전문성 개발을 목표로 전 교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이며, 주로 직전교사교육에서 시작되지만 교사가 된 후에도 교사연구회나 교사공동체의 형태로 이어져 실시되고 있다(Murata, 2012; Ikeno, 2014).

레슨 스터디는 반성적 실천을 통한 실천적 지식 함양에 도움을 주는 수업 실행 방법으로 소규모 그룹에서 수업을 계획, 실행, 관찰, 비판, 수정 및 재수업 하는 순환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의 유목적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며 학습자 중심의 관점으로 수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레슨 스터디는 하나의 수업을 정교하게 완성하는 경험을 해보는 목표도 있지만, 교사 및 예비교사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극하며 서로의 반성적 사고를 신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Lewis, 2000; Lewis & Tsuchida, 1998; Fernandez 2002; Fernandez, Cannon, & Chokshi, 2003; 유솔아, 2010).

루이스(Lewis, 2006)의 연구에 의하면 레슨 스터디는 같은 지역이나 학교에서 동일 학년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소그룹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공동의 목표에 따라 하나의 수업을 계획한 후, 한 교사가 이를 실행하고 다시 소그룹이 모여 수업실행 경험과 관찰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분석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갖는다. 토의 내용을 통해 수업의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수업계획의 개선안을 만들고 다시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제안하였다. 레슨 스터디는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공동으로 문제를 계획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의 문제점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토의하는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Fernandez, Canon, & Chokshi, 2003; Lewis, 2006; Lewis, Perry & Murata, 2006).

심스와 월쉬(Sims & Warsh, 2008)는 레슨 스터디를 현직 교사 뿐 아니라 예비교사교육에 활용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레슨 스터디는 예비교사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책임하게 수업을 실행하고 반성하면서 수업기술 및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반성적 사고기술을 갖게 함을 보여주었다. 레슨스터디는 예비교사들이 접하기 어려운 학교현장에서의 수업대신에 모의수업을 협동적으로 계획, 실행, 분석 및 반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실천적 지식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는 서경혜(2012)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레슨 스터디와 마이크로티칭 등을 토대로 한 협력적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실행 결과 공동계획, 수업 및 관찰, 평가와 피드백, 자기반성, 수정 및 재수업의 순환적 과정이 예비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 및 협력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윤, 배성아(2011)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의 과학수업개발을 위하여 레슨 스터디를 활용하였는데 예비교사들은 레슨 스터디의 효과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수업평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교사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체험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레슨 스터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봤을 때 주제는 주로 레슨스터디에 대한 소개 및 특징 분석과 수학, 과학 교사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유술아(2010), 서경혜(2012)와 정가윤, 배성아(2011)의 연구에서 레슨 스터디를 활용하였다. 레슨 스터디와 비슷한 개념의 교사학습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많은 교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협력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재수업까지 하는 레슨 스터디의 방법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재수업하는 순환구조는 예비교사교육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음악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레슨 스터디를 위한 그룹 설정을 위해 C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2015년 2학기 교과목인 <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하는 16명 전원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과목은 교생실습 직전에 개설되며,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분석하고 단원계획 및 수업지도안 작성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수업실연을 하는 교육과정으로 되어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언급했듯이 중등 예비교사들은 전공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공에 따라 서양악곡과 국악곡을 수업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악과 서양음악 전공 및 세부 전공이 다른 학생들로 네 그룹을 만들어 소규모 그룹에서 협력적으로 실행하는 레슨 스터디를 적용하였다<표 1>.

<표 1> 연구참여그룹

그룹	전공	명
A	국악(대금), 피아노	4
B	국악(가야금), 성악, 피아노	4
C	성악, 작곡, 피아노	4
D	국악(해금), 작곡, 피아노	4
합계		16

2. 연구과정

1) 레슨 스터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16명의 예비교사들이 레슨 스터디의 협력적 실행과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수업 실연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 학기의 교육과정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4주까지는 수업을 하기 위한 교재분석과 단위지도 계획 및 수업지도안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룹별 첫 과제인 교과서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수업계획에 포함되는 외부자원 수집 및 전문가 활용 내용에 대해 조별 발표를 하였다. 수업지도안은 우선 개인이 작성하여 그룹원들끼리 검토하고 수정하여 담당교수에게 확인을 받았다. 그 후에 수업자료, 수업실연을 위한 과정, 매체 제작 등 수업실연에 관한 것은 그룹원들끼리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처음의 수업실연을 모두 마친 후, 12주부터는 수업반응관찰, 동료평가 내용, 비디오분석 및 그룹원끼리의 피드백 등의 반성을 한 후 재수업을 하였다. 마지막 주에는 레슨스터디 과정 및 느낀 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업실연에 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였다.

<표 2> 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강의주제 및 내용

주	강의주제 및 내용	
1	레슨 스터디 운영방법, 과제 및 평가기준 소개 음악수업의 이해	
2	교과서 분석- 표현, 감상, 생활화	
3	음악수업의 설계- 단위계획	
4	음악수업의 설계- 수업지도안 작성	
5	교과서 분석-그룹 발표	레슨스터디 계획
6	외부 자원 수집 및 전문가 활용 그룹 발표	
7	수업지도안 작성 및 검토	

주	강의주제 및 내용			
8	수업실연 1	실행- 반성		
9	수업실연 1			
10	수업실연 1			
11	수업실연 1			
12	수업실연 2	재수업		
13	수업실연 2			
14	수업실연 2			
15	수업실연 2			
16	자기평가서 제출 및 설문조사			
그룹발표 (교과서분석, 수업참관)	수업실연	자기평가서	출석 및 태도	합계
30	40	20	10	100

2) 레슨 스터디 진행 과정

가) 목표 설정 및 협력적 계획

- (1) 목표 설정: 각 그룹에서 이번 학기 레슨 스터디를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합의하였다. 그 후에 그룹원들끼리 좋은 음악수업, 음악교사상에 대한 의견 및 자신의 장단점등에 나누고 그룹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피드백 할 내용 및 시간약속과 소통매체 등을 정하였다. 또한 교과과정에서 주어진 개인과제 및 그룹과제에 대해 인식하고, 각 과제에서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였다.
- (2) 교과서 분석: 현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등 음악교과서 17종을 각 그룹에서 4종씩 비교분석하였고 분석한 교과서 중에서 수업실연할 제재를 선정하였다.
- (3) 수업관찰을 위한 외부자원 수집 및 전문가 활용: 음악수업을 하기 위해 좋은 수업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는 수업을 관찰하거나, SNS를 활용하여 음악수업에 활용할 자료(동영상, 악보나 음악기호로 PPT 제작하는 법 등)를 공유하고, 선배교사에게 연락하여 음악수업을 직접 관찰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 (4) 수업실연 계획: 그룹 안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토의를 통해서 단원계획 및 수업지도안을 개인적으로 작성하고 그룹원끼리 검토하여 지도교수에게 검토를 받았다.

나) 실행

- (1) 수업관찰 내용 발표: 각 조에서 수행했던 수업관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 (2) 수업실연 실행 및 관찰: 각 그룹 안에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공동으로 수업을 준비한대로 한 명씩 수업실연을 하였다. 다른 조원들은 수업을 실연하고 있는 예비교사의 실행 및 학생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관찰하였다.

다) 분석적 반성 및 재수업

- (1) 수업분석 및 개선안 논의: 수업실연 후 각 그룹에서는 비디오로 촬영된 수업 및 평가지(동료평가, 교수평가)를 분석하고 수업에 대한 반성 및 개선안을 논의하였다.
- (2) 교수학습안 재작성 및 재수업: 논의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안을 다시 작성하고 재수업을 실시하였다.
- (3) 자기평가서: 수업에 대한 해설과 반성 등이 포함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위의 레슨 스터디 진행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레슨 스터디					
협력적 계획		→	실행	→	분석적 반성(재수업)
목표 설정	협력적 계획		수업실연		수업분석 및 개선안 논의 → 교수학습안 개선안 작성 및 재수업
음악교사에 대한 인식, 장단점 나누기	교과서분석		수업관찰발표		수업분석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평가)
과제인식 역할분담	수업관찰 계획 (전문가, 웹사이트활용)		수업실연1		그룹원간의 피드백 (온라인/오프라인)
그룹원 간의 합의 (시간, 소통매체 등)	단원계획 및 수업지도안 작성, 검토		평가 및 학습자의 반응에 대한 해석 및 토론		개선안 논의 및 재수업 구상
					개선된 교수학습안 작성
					수업실연2
					자기평가서 제출

[그림 1] 레슨 스터디 진행과정

3.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협력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재수업의 과정을 거치는 레슨스터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업실연평가표, 레슨 스터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 및 수업실연에 대한 해설과 반응을 포함하여 작성한 자기평가지를 연구도구로 설정 하였다.

수업실연 평가표는 임찬빈, 이경언(2006)의 수업전문성 일반기준, 백순근 외(2007)의 교수역량 평가기준 요소, 나폴레스(Napoles, 2008)의 마이크로티칭 척도의 평가항목 및 C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수업관찰평가표를 근거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예비교사들의 수업실연을 통해서는 판단될 수 없는 영역은 제외하고 재구성하였다.

레슨 스터디에 대한 질문지와 자기평가지는 선택형, 체크리스트형 및 자유기술형의 질문유형으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수업실연평가표의 영역과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수업실연평가표의 영역 및 내용

영역		평가항목 내용
수업 실 행	도입	학습상태점검과 학생관리가 이루어졌는가
		전시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동기유발은 적절한가
	전개	학습목표 진술이 잘되었는가
		학습목표에 따른 교육내용 선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이 적절하였는가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음악의 개념과 원리를 터득해나갈 수 있는 수업전략을 적용하였는가
		음악적 시범이 잘 이루어졌는가
		교수용어가 적절한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을 하였는가
		긍정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부각 되고 있는가
		학생의 질문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였는가
		수업목표에 맞는 매체와 방법을 선정했는가
	정리	확인학습이 잘 이루어졌는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였는가?
		다음 차시 예고가 이루어졌는가?
		수업의 흐름이 원활하고 도입-전개-정리가 잘 조직되어 있는가?
태 도	언어 표정 동작	발음, 말하는 속도, 목소리 크기가 적절한가?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강약을 잘 구사하는가?
		모든 학습자를 골고루 둘러보며, 시선은 학습자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자세와 몸동작이 자연스럽고 적절한가?

회수된 수업실연평가표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평균차이 검증인 T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으며,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V. 결과분석 및 해석

본 장에서는 16명의 예비교사들이 그룹을 만들어 협력적으로 음악수업을 계획하고 수업을 실행한 후 분석적 반성을 통해 재수업을 하는 순환적 과정의 레슨 스터디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예비음악교사의 협력적 전문성 신장 가능성 탐색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예비음악교사의 협력적 전문성 신장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레슨 스터디를 통해 수업실연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1, 2차 수업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레슨 스터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와 셋째, 자기평가지를 통한 음악수업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레슨 스터디를 통한 수업역량의 향상

먼저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도입, 전개, 정리, 태도의 영역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1차 수업의 평균이 4.29점, 2차 수업이 4.56점으로 2차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이는 전반적으로 두 번째 수업을 잘 한 것으로 나타나며, ‘정리’와 ‘태도’ 영역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표 4>. 이는 예비교사들이 두 번째 수업에서는 첫 번째 수업보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수업을 하고, 첫 번째 수업 후 평가내용을 참고로 수업 중에 사용하는 언어, 표정, 동작을 유의하여 수업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수업 영역별 비교

	1차		2차		대응차 평균	t	p
도입	4.42	.273	4.68	.188	-.250	.656***	0.003
전개	4.20	.315	4.45	.215	-.248	-3.428**	0.004
정리	4.44	.434	4.78	.163	-.339	-3.170**	0.007
태도	4.24	.418	4.58	.219	-.336	-3.619**	0.003
전체	4.29	.332	4.56	.189	-.267	-3.662**	0.003

* $p<.05$, ** $p<.01$, *** $p<.001$

<표 5>는 항목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로 ‘학습목표 진술’, ‘음악적 시범’, ‘효과적 발문’, ‘다음차시 예고’ 항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습상태 점검 및 학생관리’항목 외 17개 항목은 1차 수업 보다 2차 수업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표 5> 평가항목별 비교

	평가항목	1차(N, SD)		2차(N, SD)		대용차 평균	t	P
도 입	학습상태점검 및 학생관리	4.40	.347	4.74	.185	-.340	-3.863**	.002
	진시 확인	4.46	.335	4.68	.302	-.223	-2.234*	.044
	동기유발	4.17	.394	4.60	.242	-.434	.532**	.004
	학습목표 진술	4.68	.173	4.68	.265	-.004	-.059	.954
전 개	학습목표에 맞는 수업전개	4.29	.377	4.65	.251	-.356	-4.291***	.001
	효과적 수업전략	4.10	.388	4.41	.247	-.096	-3.142**	.008
	음악적 시범	4.22	.425	4.32	.324	.146	-.912	.378
	적절한 교수용어	4.26	.306	4.57	.298	-.159	-4.462***	.001
	효과적 발문	3.92	.335	4.04	.280	.083	-1.282	.222
	구체적 피드백 제공	4.14	.334	4.41	.302	-.045	-2.614*	.021
	핵심내용 부각	4.28	.415	4.58	.256	-.057	-2.681*	.019
	학생질문에 적절한 반응	4.20	.361	4.41	.265	-.033	-2.547*	.024
정 리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4.41	.347	4.67	.142	-.073	-3.002**	.010
	확인학습	4.56	.290	4.80	.218	-.104	-3.813**	.002
	배운내용 정리	4.40	.358	4.71	.231	-.097	-3.151**	.008
	다음차시 예고	4.52	.739	4.90	.112	.059	-1.867	.085
태 도	원활한 도입전개정리	4.27	.479	4.71	.206	-.216	-4.300***	.001
	발음, 속도, 목소리 크기	4.24	.433	4.56	.238	-.128	-3.580**	.003
	목소리의 강약	4.05	.456	4.46	.294	-.196	-4.143***	.001
	시선	4.39	.426	4.65	.244	-.026	-2.393*	.032
	자세와 몸동작	4.30	.412	4.64	.223	-.140	-3.643**	.003

* $p<.05$, ** $p<.01$, *** $p<.001$

재수업을 한 결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항목, 즉 예비교사들이 많은 발전을 보인 항목은 ‘동기유발’로 한 번의 수업 후 어떤 식으로 동기유발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2차 수업에서는 잘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학습목표에 맞는 수업전개’, 와 ‘학습상태 점검’ 항목이 2번의 수업실연 결과 가장 많이 좋아진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목표 진술’항목은 2번의 수업의 평균이 같게 나왔으며, 이는 이미 1차 수업에서도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것은 수업의 기본적인면서도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잘 실행하였기 때문에 2차 수업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학생질문에 적절한 반응’ 과 ‘구체적 피드백 제공’의 항목은 대

응차 평균이 낮게 나타나 2번의 수업 후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질문을 하는 것 까지는 교수·학습안에 제시를 했어도 질문에 대한 반응과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효과적인 발문에 대한 내용과 수업반응에 대한 부분은 예비교사들에게 추가적으로 가르쳐야 할 요소로 나타났다.

2. 레슨 스터디에 대한 인식

교과목의 마지막 주에 실시했던 레슨 스터디에 대한 인식조사는 레슨 스터디를 위해 그룹이 만난 횟수,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제, 도움이 된 이유. 레슨 스터디를 통해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과 수업실연 후 피드백의 내용 등에 대해 질문지(questionnaire)를 작성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슨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제는 ‘수업실연준비’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외부자원 수집(실제 수업참관)’, ‘수업지도안 작성’, ‘교과서 분석’의 순서로 나타났다. 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과목에서 레슨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해서 수업실연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표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실연 준비과정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다수가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움이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을 조원이 알려주는 것’과 ‘토의 과정에서 느끼는 배움’을 가장 많이 얘기하였다.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학습을 분담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 ‘컴퓨터 사용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럿이 하기 때문에 과제나 활동이 확실히 이해 된다’ 등 그룹으로 수행 했을 때의 실제적인 장점들을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표 6>.

<표 6>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공동과제

응답내용		명(%)
수업실연준비		6(37.5)
실제수업참관		4(25)
수업지도안 작성		4(25)
교과서 분석		2(12.5)
합계		16(100)
이 유	잘 모르는 부분을 조원이 알려줌	6(37.5)
	토의과정에서 느끼는 배움	5(31.2)
	학습분담에서 오는 시간절약	3(18.7)
	컴퓨터 사용 등 보조적 배움	1(6.3)
	여럿이 하기 때문에 과제나 활동이 확실히 이해됨	1(6.3)
합계		16(100)

레슨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공평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다음으로 화합, 소통, 배려, 경청하는 것 등 협력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는 협동을 통한 좋은 결과와 수업실연을 잘 하도록 하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표 7> 레슨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응답내용	명(%)
공평한 역할분담 및 책임감	8(50)
화합, 소통, 배려, 경청	5(31.2)
협동을 통한 좋은 결과	2(12.5)
수업실연준비	1(6.3)
합계	16(100)

레슨 스터디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조원에게 배우는 것’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 외에도 ‘피드백 등 많은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생각이 넓어짐’, ‘내가 놓친 부분을 보완해줌’, ‘일이 수월하게 진행됨’, ‘책임감이 더 생김’ 과 ‘궁금한 점이 바로 해결됨’의 순으로 답하였다<표 8>. 이는 레슨 스터디는 공동이 문제를 계획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업의 문제점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토의하는 과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8> 레슨 스터디가 도움이 된 점

응답내용	명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조원에게 배우	4(25)
피드백 등 많은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생각이 넓어짐	4(25)
내가 놓친 부분을 조원들이 보완해줌	2(12.5)
수업실연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짐	2(12.5)
그룹과제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생김	2(12.5)
궁금한 점이 바로 해결됨	2(12.5)
합계	16(100)

레슨 스터디를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 조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다수가 답하였다. 그 외 ‘어려운 점 없음’, ‘의견조정 및 타협점 찾기’, ‘과제 및 역할 부분의 적절성, 불필요한 수다와 준비시간 부족 등의 답변도 나타났다<표 9>.

<표 9> 레슨 스터디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응답내용	명
시간 조정	8(50)
의견조정 및 타협점 찾기	3(18.7)
과제 및 역할배분의 적절성	2(12.5)
불필요한 수다	1(6.3)
과제준비시간 부족	1(6.3)
어려운점 없음	1(6.3)
합계	16(100)

레슨 스터디는 하나의 수업을 정교하게 완성하는 경험을 해보는 목표도 있지만, 교사 및 예비교사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극하며 서로의 반성적 사고를 신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레슨 스터디에서 강조하는 수업 후 분석 및 반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업실연 후 진지하게 장단점에 대해 피드백을 하거나 개선방안을 공유했다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0>.

<표 10> 피드백 방법

응답내용	명
수업실연 후 진지하게 장단점에 대해 토론, 피드백	8(50)
개선방안이나 극복방안에 대한 공유	4(25)
피드백이라기 보다는 잘했다, 수고했다 등의 칭찬과 격려	4(25)
합계	16(100)

3.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들이 수업실연 후 수업에 대한 해설과 반성 등이 포함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음악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협력의 중요성 경험 및 수업 전문성 등에 대한 다양한 반성이 나타났다.

1) 음악수업에 대한 이해

수업실연을 협동적으로 계획, 실행, 분석 및 반성하는 과정은 예비교사들이 음악수업을 이해하고 음악수업을 평가하는 기준과 시각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수업참관을 통해서 음악수업에서 교사의 역할, 준비도 및 역량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도 본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레슨 스터디를 통해 어떤 순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의 반응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또한 학생들에게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는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좋은 수업 동영상을 보고 수업참관을 다녀와서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을 보고 음악교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좋은 기회였다.

수업실연을 하면서 음악수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레슨 스터디의 과제들을 통해 음악수업에 대해 이렇게나 많이, 다방면으로 생각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성격상 꼼꼼하지 못해서 수업지도안이 허술했는데 조원들이 도와주어 수업지도안부터 구체적으로 짜봤으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설정해야 수업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느꼈다.

수업참관을 보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사가 재구성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나의 말투에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편하게 말하는 것이 괜찮은지 똑부러지는 말투로 고쳐야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레슨 스터디를 통해 부쩍 음악교사다운 마음과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2) 협력의 중요성 경험

예비교사들은 레슨 스터디를 통해서 수업실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과제, 전문가 활용 및 수업 계획 등을 협력하여 수업실연을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하였고 진솔하였다.

처음에는 수업실연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조원들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을 해보니 생각보다 수월하게 했다. 조원들과 수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기술과 정보들을 배우다보니 좀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지고 밝은 느낌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

1차 수업에서 피아노 반주는 열심히 하였으나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성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2차 수업에서는 성악전공인 조원에게 노래지도를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떨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른 점이 좋았다.

이론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싶어 판서로 자세한 설명을 하려 노력했고, 어려운 단어일까봐 조원들에게 검토를 받고 최대한 알기 쉽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수업시연 있기 전날 조원들끼리 모여서 리허설을 해보기로 했는데 결국에 서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리허설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장구칠때나 피아노치면서 노래할 때 자꾸 빨라지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수업참관을 하고 조원들 앞에서 연습하다보니 빨라지는 것은 성격적인 이유보다 곡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나서 여러 곡을 많이 연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교생실습 전에 실제 수업처럼 해볼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조원친구들 앞에서 미리 수업을 해보았다. 피아노와 노래 실력 및 음악적 개념에 대한 설명에 대해 더 연습하고 배워야겠다고 느꼈다.

3) 반성적 사고과정

레슨스터디는 예비교사들이 접하기 어려운 학교현장에서의 수업대신에 수업실연을 협동적으로 계획, 실행, 분석 및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수업기술 및 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반성적 사고기술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지난시간에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인가? 항목에 최하점을 받아서 이번 수업에서는 ‘나란한 조’의 명칭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넣었는데 사고를 자극하는 발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음악수업에서 효과적인 발문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 내가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 내가 수업평가를 냉정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에게 했던 평가를 생각해서라도 내 자신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기준을 보며 꼼꼼하게 수업실연을 준비했다.

국악곡을 수업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예 아니오의 대답이 아닌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연구를 더 해야겠다고 느꼈다.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음악수업의 큰 부분임을 알았다. ㄷ자 자리배치에 따라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어떤 학습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꼈다.

지도안에는 소프라노/알토 부분을 나누어서 노래부른다 라고 적어놓고 막연하게 남자/여자로 나누어서 부르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수업실연때 남학생이 몇 명 없는 것을 보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수업지도안을 짤 때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겠다.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기엔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오늘은 친구들 앞에서 수업실연했지만 실제로 중학생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니 아찔했다. 중학생에게 맞게 쉽게 설명하면서도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이라는 전문성이 생각보다 폭넓으면서도 깊이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협력적으로 수업을 계획, 실행하고 수업에 대해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수업연구인 레슨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목을 설계하였고, 예비교사들의 레슨 스터디에 대한 효과와 경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레슨 스터디는 예비교사들의 수업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협력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분석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에게 레슨 스터디를 적용한 후 수업실연의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보아 레슨 스터디가 예비교사들의 수업실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공실기 수업을 위해 혼자서 연습하는 것이 익숙한 예비교사들이 그룹 안에서 공동의 책임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음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레슨 스터디를 통해 타 전공에 대한 이해 및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음악교사를 지원하는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실기를 전공하고 있다. 서양음악과 국악으로 나뉘어지지만 각 영역에서 다양한 세부전공이 존재한다.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서양음악과 국악을 모두 가르치고 국가 임용고시에서 두 영역이 모두 출제되지만, 실제로 두 전공을 모두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전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성악전공의 예비교사가 가창수업을, 국악전공의 예비교사가 국악수업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자신의 전공 외의 이론을 가르치고 활동 할 때 자신감이 결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레슨 스터디를 통해서 서양음악과 국악 전공의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한 그룹

으로 구성하고, 공동체의 책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서로 배우며 타 전공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음악수업과 음악수업평가에 대한 이해와 수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레슨 스터디의 전 과정은 예비교사들에게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수업상황을 조정하는 능력 및 수업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교사전문성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역량임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가능한 실제와 비슷한 수업상황을 제공하고, 수업 후 객관화 하여 분석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통해 경험적이고 상황적인 실천적 지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레슨 스터디 과정에서 수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수업평가는 수업의 질을 순위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닌, 좋은 수업에 대해 이해하며 공유하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임용고시에서의 수업실연에 대한 공통의 평가기준이나 현장교사와는 다른 예비교사 대상의 수업평가 기준 및 결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 관련하여 예비교사 간의 협력, 예비교사와 현직교원간의 협력 및 교육실천의 개선을 위한 협력적 탐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비교사들이 레슨 스터디를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수업실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현장 적용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4주간의 제한된 기간 동안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실습 전에 실제로 수업을 계획, 실행, 반성하는 레슨 스터디를 통해서 교육실습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수업현장에서의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및 교육대학원의 음악과 수업에서 레슨 스터디와 같은 실험적 수업실습 과정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교사교육에서 레슨 스터디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방법, 내용, 도구 등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협력적 공동체의 설계과정을 들 수 있다. 트로엔과 볼레스(Troen & Boles, 2011)에 의하면 효과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과제 집중도, 지도력이 잘 발휘되는 팀 분위기,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적 분위기, 팀의 성과 향상을 위한 개인적 책무성 인식 정도, 그리고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구조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였다. 현장에 있는 교사 공동체와 달리 예비교사들의 공동체가 기존의

과제를 같이 하는 단순한 조별활동이나 조별과제와 차별화 되어 공동체로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실행공동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대학생인 예비교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레슨 스터디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며, 양적인 연구방법만을 사용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사 공동체와 수업연구에 대한 실제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레슨 스터디를 활용해서 협력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후 수업행위를 분석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제공하였다는 점과 수업역량이 향상된 점 등 현장적용능력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는 측면으로 효과적인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권낙원 (2007). 전문학습공동체 구성 가능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7(2), 1-27.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전부의 대학평가방향 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서경혜 (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43-273
- 서경혜 (2012). 예비교사들의 협력적 수업연구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 신지혜 (2014). 음악교사간 협동이 교사 전문성 향상에 끼치는 효과. **교원교육**, 30(2), 131-147.
- 오지향 (2012).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수업실연 실태조사. **음악교육연구**, 41(1), 191-227.
- 유솔아 (2010). 미국의 레슨 스터디 실행사례 연구: 교사주도의 학교 교육개혁의 대안적 모델. **비교교육연구**, 20(2), 95-128.
- 이효신 (2013). 협력적 실험연구를 통한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 가능성 탐색. **융용언어학**, 29(2), 357-386.
- 임찬빈, 이경언 (2006). 수업평가매뉴얼: 음악과 수업평가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6-24-9.
- 장훈 (2010). 공립학교군별 전문학습공동체 형성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가윤, 배성아 (2011). 예비교사의 과학수업개발을 위한 협동적 업연구의 효과. **교과교육학연구**, 15(4), 1059-1078. 49-76.
- Bair, M. A. (2012). Teacher Professionalism. *Mid-Western Educational Researcher*, 26(2), 28-57.
- DuFour, R. (2004). What i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Educational Leadership*, 61(6), 6-11.
- Fernandez, C. (2002). Learning from Japanese approaches to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lesson study.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3(5), 390-405.

- Fernandez, C., Cannon, J., & Chokshi, S. (2003). A U.S.-Japan lesson study collaboration reveals critical lenses for examining practic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2), 171-185.
- Fernandez, C., Cannon, J., & Yoshida, M. (2004). *Lesson study: A Japanese approach to improving mathematics teaching and learn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rgreaves, A., & Fullan, D. (2012). *Professional capital. Transforming teaching in every school*.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Hord, S., & Sommers, W. A. (2007). *Lead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Voices from research and practice*. Thousand Oaks, CA: The Corwin Press.
- Ikeno, N. (2014). Teacher Education Refrom through Lesson Studies in Japan. 교사전문성 개발과 국제수업비교연구 컨퍼런스
- Lewis, C. (2006). Lesson study in North America: Progress and Challenges. In M. Matoba, K. A. Crawford, & M. R. Sarkar Arani (Eds.). *Lesson study: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olicy and practice* (33-63). Beijing Educational Science Publishing House.
- Lewis, C., Perry, R., & Murata, A. (2006). How should research contribute to instructional improvement? The case of lesson study. *Educational Researcher*, 35(3), 3-14
- Lieberman, A., & Miller, L. (Eds.). (2008). *Teachers in professional communities: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ouis, K. S., & Kruse, S. (1995). Professionalism and community: Perspectives on reforming urban schools. Long Oaks, CA: Corwin Press.
- Murata, A. (2011). Introduction: Conceptual overview of lesson study. In L. C. Hart, A. S. Alston, & A. Murata (Eds.). *Lesson study research and practice in mathematics education* (pp. 1-12). New York: Springer.
- Murata, A., Bofferding, L., Pothén, B. E., Taylor, M. W., & Wischnia, S. (2012). Making connections among student learning, content and teaching: Teacher talk paths in elementary mathematics lesson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Mathematics Education*, 43(5), 16-650.

- Napoles, J. (2008). Relationships among instructor, peer, and self-evaluations of undergraduate music education majors' micro-teaching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6(1). 82-91.
- SCALE(2013). edTPA K-12 Performing Arts Assessment Handbook. Stanford Center for Assessment, Learning, & Equity.
- Sim, L. & Warsh, D. (2008). Lesson study with practice teachers: Lessons from lesson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5), 724-733.
- Troen, V.& Boles, K. (2011). The Power of Teacher Teams: With Cases, Analyses, and Strategies for Success. CA: Corwin Press.

ABSTRACT

Utilizing Lesson Study to Improve Collaborative Expertise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Ji-Hyang Oh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he collaborative expertise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utilizing lesson study. During the course of this study, 16 pre-service music teachers conducted teaching demonstrations in a cyclical process involving planning, implementation, reflection, and instruction. To this end, assignment design, external resource collection and sharing, and class planning and teaching demonstrations were carried out collaboratively. The positive factors associated with lesson study were the strengthening of class capabilities, the understanding of music class, purposeful discussions, the collection of external resources, and an improved sense of responsibility. The negative factors included time coordination, role conflicts, and the need for opinion coordination. This study had a limitation in that the subjects were confined to pre-service teachers and only quantitative study methods were used. These methods did not fully reflect the practical aspects of teachers' community and class study appearing in actual educational field. Nevertheless, lesson study was utilized for pre-service teachers, and they planned class collaboratively, implemented the lesson, modified and complemented the results, and conducted class again. This process enhanced the teachers' instructional capabilities, strengthened field application abilities, and improved expertis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lear that lesson study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effective program fo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Key words: lesson study, collaborative expertise, teaching demonstrati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투고일: 2015년 5월 28일, 심사(수정): 7월 14일(7월 22일), 게재확정일: 7월 22일